



# 당진시의회 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충청남도 당진시  
www.dangjin.go.kr

제4호 | 2015년 6월 30일(화)

※당진시의회 소식은 시민여러분께 당진시의회 의정활동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됩니다.

■ 발행인 : 당진시의회 의장 ■ 발행처 :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소 : 343-050 충남 당진시 시청로 1 ■ 전화 : (041)350-4831 ■ 팩스 : (041)355-1901



## 당진항 현지에서 임시회 개최

### 지역갈등 조장하는 행자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두(카길 애그리퓨리나 인근)에서 당진땅 수호 의지를 다졌다. 당진시의회는 5월 18일 당진항 서부두에서 제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4월 13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국토교통부의 토지등록 변경을 규탄하고, 당진항 매립지는 당진 땅임을 천명했다. 당진항 매립지가 당진 땅임을 다시 한번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는

이재광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집행부 공무원과 아산 시의원 15명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 14개 읍면동에서 준비한 당진 흙, 당진 물을 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이·통장협의회장이 함토·함수식과 당진땅 경계비 제막, 당진땅 수호를 위한 희망 풍선 500개 날리기 행사를 가졌다. 당진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행정자치부 결정은 독도가 지리적으로 일본에 가깝다고 일본이 관할하도록 결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라고 성토했고 “국가에 영토와 해상경계가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간에도 그 경계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도계를 무시한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된 일”이며 “당진 시의회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 제소, 북당진변전소-평택고덕간 이중화선로 설치 반대 등 당진 땅을 사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광 의장은 “당진항 매립지는 명명백백한 당진의 땅임을 밝히고, 당진땅 사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당진항 매립지에서 임시회를 개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당진 땅 수호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맹봉재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안호권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국어사용 촉진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당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 결 의 문

지난 4월 13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충청남도 당진시의 땅을 당진 30%, 평택 70%로 관할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독도가 지리적으로 일본에 더 가깝다고 독도를 한국이 30%, 일본이 70%로 나눠 관할하도록 결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는가? 접근성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성과 기존에 정해진 경계를 근거로 관할권을 나눠야 한다. 국가에 영토와 해상경계가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그 경계가 분명히 있다. 이 경계를 근거로 하는 관할권은 행정자치부가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도계를 무시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터무니없는 결정은 헌법 정신상으로도 심각하게 위배되는 일이다. 행정자치부는 중분위의 결정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듯 국토교통부에 토지등록 변경 신청도 신속히 처리해 버리고, 국토교통부는 신중한 검증 없이 하루 만에 토지등록 변경 처리해 주었다. 이렇듯 소중한 당진시민의 땅을 평택시로 변경 결정한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에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엄연히 확인된 해상경계를 무시하고 당진 땅을 평택으로 넘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법을 교묘하게 개정하고 분쟁을 조장한 행정자치부, 신중한 검증 없이 토지등록 변경 처리한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17만 당진시민의 분노와 당진땅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당진·평택 매립지는 당진땅임을 오늘 당진땅 경계비 제막을 통해 다시 한 번 대외에 천명한다.

하나.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역사성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결정으로, 대법원 제소, 북당진변전소-평택고덕간 이중화 선로 설치 반대 등 당진땅을 사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하나. 행정자치부장관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전원 사퇴하라.

하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등록 변경을 줄속 처리해 준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17만 당진시민에게 사죄하라.

### 당진항 매립지는 당진땅이다!!



▶ 임시회 개최 후 결의문 낭독, 당진 흙, 물 함토·함수식, 경계비 제막식 등 퍼포먼스를 거행하였다.

## 행정자치부 결정 규탄 성명서 발표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는 4월 16일 오후 2시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측에 귀속 결정을 17만 당진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진시의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수 백년 동안 당진땅이었으며 아산만일원의 절대 불가침인 도계를 변경하여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의 울분을 터트리게 한 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은 편향된 결정과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분장을 조장한 행정자치부 장관과 중앙분쟁조정위원들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결정에 책임을 지고는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당진시민의 삶의 터전이며,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인 당진항 일원은 당진의 바다, 당진의 관할구역에 있는 엄연한 당진 땅이다.”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당진시의회는 “당진 땅 수호를 위해 2010. 3. 31. (당진군의회) 제173회 임시회에서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결의문 (박장화 의원 외 11명) 채택해 국회 등 12개 기관에 제출하였고, 2015. 1. 27. 제26회 임시회에서도 양창모의원의 11명이 아산만일원 당진시 관할권 인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해 국무총리 등 9개 기관에 제출한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5. 1. 28. 아산시의회 유기준 의장을 면담하고 아산만 일원 경계 사수를 위하여 당진시와 아산시가 협력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한바 있다. 또한 2015. 2. 23.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청양군 심우성 의장외 13명)는 당진 평택항 충청남도 도계사수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는 등 당진 땅 수호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 도계 분쟁관련 안희정 충남도지사 면담 - 당진시와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



당진시의회 의원 12명은 4월 30일 안희정 충남지사를 면담하고 4월 13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향후 충남도와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시의회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면담자리에서

“아산만 일원의 매립지는 충남도·경기도간 경계이며, 당진항의 중심 지역으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충남의 대중국 무역항인 당진항의 항만개발계획에 따라 장래 매립 생성될 항만부지 약 300만평의 관할권을 상실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날 당진시의회는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대응방안 등 충남도의 입장을 표명할 것과 대법원 소제기에 따른 법률 비용 부담, 도민 결의와 항의 집회 등 대책위원회 활동지원, 분쟁대응 TF팀을 당진시에 설치할 것, 신평-내항간 연육교 조기 건설, 당진항 개발 등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게 조치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그 동안 나름대로 대응 노력했으나 미흡했던 부분은 유감이며, 향후 충남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고, 법률 비용도 충남도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원회 활동지원과 분쟁대응 TF팀을 당진시 설치해 당진시와 협의해 처리하고, 항만개발 등 국가계획은 국가를 압박해 조기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의회 활동



2015년 2월 11일 (시청 앞 광장)



2015년 4월 6일 (세종 정부청사)



2015년 4월 23일 (서부두 일원)



2015년 4월 27일(도·시군 의장 간담회)



# 제28회 임시회 5일간 열려



당진시의회는 제28회 임시회를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열고, 당진항매립지 관할권 평택귀속 결정 규탄 결의문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과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당진시 주요 현안 사업장을 현장방문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심사 의결했다.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

리계획(안)은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건립 (15억원)과 합덕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86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현안업무 보고로는 ▲감사법무담당관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추진 ▲안전행정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귀속단체 결정에 따른 현황 및 대응계획 보고 ▲회계과 당진시 청사 토지대금 잔금 상환 계획 ▲여성가족과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설치운영 ▲자원순환과 고대·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시설 설치 추진 상황 등 4개부서 4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현장방문 첫날인 21일에는 면천초등학교 이전신축 현장, 신평면사무소 이전 신축 계획지, 가곡리 선착장, 김승진 선장 희망항해 행사장 준비사항 점검 및 왜목 관광지 모래 포설 현황 등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대상지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업장을 방문했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최근 철강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부제철, 현대제철, GS-EPS변전소 건설현장, 당진변전소 주변 환경 개선 관련, 순성협동화단지를 방문하여 회사 관계자를 격려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2차 본 의회에서 박장화위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재광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4월 13일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귀속단체 결정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히고, “앞으로 충남도와 당진시의 기본대응 방침에 적극 동참하여 도계를 사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박장화 의원 대표 발의

원 전원이 발의한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장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서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며, 의원 모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17만 당진시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것임을 결의하였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4월 24일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당진시의

## 6월 의원 출무일 운영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는 2015년 의원출무일을 6월 5일(금) 오전 11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운영했다. 이번 6월 출무일은 6개부서 7건에 대한 업무 협의와 다음달 6일부터 열리는 제30차 1차 정례회와 제1회 당진시의회 의정 정책 포럼 개최 등을 협의하였다. 세부 협의사항으로는 ▲체육육성과 합덕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 건의사항 검토, 대한배드민턴협회 전용구장 유지 추진상황 보고 ▲사회복지과 맞춤형복지 급여제고 주민안내 협조 ▲기업지원과 현안사업 추진현황보고 ▲건설방재과 난지섬 연도교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당면 업무 협의를 가졌다. 또한 보건소장으로부터 최근 발생한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시에서는 중증호흡기증후군 대책본부 설치와 예방물품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에 정상 진료를 위한 지원 및 협조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메르스 예방 원칙은 감기·인플루엔자 예방 원칙과 동일하므로, 평소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메르스 예방에 가장 좋다고 말했다. 이재광 의장은 인사말에서 “2015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그 동안 각 분야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알차게 반영됐는지 꼼꼼하게 살펴 대안을 제시하고, 올 한해 시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과, 집행부에는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결 의 문

우리 당진시의회는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 중단과 지방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당진시의회는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절대 반대한다.
1.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경제를 고사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기요턴 민관합동회의의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
1. 우리 당진시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17만 당진시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것임을 결의한다.

# 제28회 임시회 현장방문

면천초등학교



▶ 학교 이전 신축 현황

성구미항



▶ 선착장 보강공사 현지 점검

왜목항



▶ 요트세계일주 준비 상황 청취

현장방문

복당진 변전소



▶ 변전소 건설 현장 확인 점검

기업체 방문



▶ 관내 철강업체 고충 및 현안사항 청취



현장방문

## 총무위원회현장방문

- 송악읍, 순성면 사업대상지 -

총무위원회(위원장 인효식)는 지난 5월 15일 제29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2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상지 사업 현장을 찾아 직접 현안사항을 듣는 등 현장 의정을 실천해 나갔다.



▶ 순성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예정지



▶ 송악읍 주민자치시설 건립 예정지



## 보훈의 달

당진시의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일(현충일) 나라사랑공원을 참배·헌화 분향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가정을 방문하여 대화시간을 갖고 가족들을 위로하였다.





# 예결특위 추경 예산안 심사

## - 당초 요구액에서 21억 8520만원 삭감



당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재, 부위원장 인호식)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15년도 제1회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부분에서 변동된 국고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수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주민숙원해소와 민생안전 및 당진경제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일반회계452억, 특별회계 360억이 증액 계상되어 심의 검토를 통해 당초 예산안에서 ▲문화관광과(문예활동진흥구현) 3억원 ▲농정과(3농 혁신업무추진) 5백만원 ▲농수산유통과(해나루 공명브랜드 포장재 지원) 1천만원 ▲자원순환과(쓰레기투기단속) 7천만원 ▲교통과(합덕공영주차장 조성) 18억원등 총21억8520만 원을 삭감한 812억을 의결하였다.



▶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간담회



▶ 의용소방대연합회 간담회

###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당진시의회는 간담회를 열고 지역단체 및 주민들과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지역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갈 계획이다.

## 총무위원회 선진지 견학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인호식)는 지난 4월 9일~10일 1박2일 일정으로

문화 예술과 연계한 도시재생 등 의정활동 수집을 위하여 전주한옥마을과 전통시장을 비롯한 김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등)를 방문하였다. 이번 벤치마킹을 통하여 전통 특화시장에 대한 연구 및 비교·검토하여 우리시 원도심 활성화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 전주 한옥 마을, 남부 시장



▶ 김제 벽골제, 서천 특화시장

#### ■ 한옥마을 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교동 일대
- 인 구 : 653세대, 1,322명
- 건 축 물 : 776동(한옥 605, 기타 171)
- 문화유적 : 국가 지정 4종, 전라북도 지정 12종
- 방 문 객 : 592만명(내국인 578, 외국인 14)

#### ■ 남부시장 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1길 19-1(2층)
- 추진배경 :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추진
- 업 체 수 : 33개

#### 〈청년몰 운영〉

- 운영현황 : 청년 보따리단, 사회적기업 이음, 남부시장 상인번영회가 연계한 '협동의 리더십'으로 쇠퇴해 가는 지역 전통시장의 풍경 변화
- 청년회관 : 청소년 시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및 청년 이슈와 관련된 세미나 개최, 발표회, 전시회 운영

#### ■ 김제 벽골제(농경문화 박물관) 현황

- 위 치 : 전북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로 442
- 개관일 : 1998. 4. 21.
- 전시관 : 1전시실(농경문화), 2전시실(생활민속), 3전시실(벽골제언), 기획전시실(소장품)
- 국가사적 제111호 고대 최대의 수리시설인 벽골제의 역사적 의의와 발굴경과 보존
- 수리·치수의 역사 및 전래 농경도구와 농경문화를 김제를 주제로 하여 전시, 교육공간으로 활용

#### ■ 서천 특화시장 현황

- 위 치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42
- 시설현황 : 2001년도부터 75억원 투입(연면적 6,545㎡, 지상2층), 점포 및 식당 등, 편의시설 설치, 2004년 (구)서천시장 폐지
- 수산동, 채소동, 의류동, 잡화동 운영
- 서천특화시장 홈페이지 구축·운영을 통한 홍보효과 제고
- 위생건조장 구축으로 위생적인 건어물 유통 지원
- 1층 수산물 구입 ⇨ 2층 식당가 이용으로 편의성 증대

# 산업건설위원회 국외 연수 보고 북유럽 4개국 친환경 정책 복지 정책 사례 연구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상영)는 2015.4.5.~4.13. 7박9일 일정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을 다녀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북유럽 특유의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정책에 대한 사례조사와 선진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우수사례와 정책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지만 최근의 경제가 고성장 시대를 끝냄에 따라, 재정이 압박받고 있으며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복지제도도 변화를 재촉 받고 있다. 선택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를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증세문제로 시끄러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펜하겐 화훼 유통센터

### 방문개요

- 2015. 04. 06. 코펜하겐 화훼 유통센터
- 면 담 자 : 센터 관리자

### 질의응답

- Q 초기설립 자본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있는지?**  
A 1999년 초기 설립 시 시의 보조가 있었으며 일정이윤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보조는 중단되어 현재는 자체적으로 운영중임.
- Q 상품판매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에 대해 ?**  
A 2명의 숙련된 정원사가 상주하며 지역 기후에 맞는 품목추천과 재배방법을 교육하며 적절한 교육을 듣고 그에 따른 조건에서 재배를 했을 경우 1년간 무상 보증을 실시하고 있음.
- Q 취급하는 품목은?**  
A 화훼관련 모든 제품을 취급하는 화훼종합센터로 배송 시스템도 갖추고 있으며, 관상용 화초류, 유실수부터 가로수 및 조경용 대형 나무까지 주문에 따라 판매하고 있고, 식물재배에 필요한 비료, 약제에서부터 돌, 흙까지 취급. 또한 식물재배에 필요한 각종 기계류와 조경에 필요한 디자인 소품을 취급하여 조경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기본 판매전략으로 가지고 있음.



노르웨이 농식품부

### 방문개요

- 2015. 04. 07. 노르웨이 농식품부 회의실
- 면 담 자 : 농식품부 농업과장

### 질의응답

- Q 줄어드는 농업인구 및 농업생산량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A 유제품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줄이고 있으며, 가구당 생산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돼지나 닭, 양 등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구상중이다. 생산, 소비를 검토하여 규제를 풀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 Q 한국과 노르웨이가 FTA를 체결하면 가장 타격이 큰 것은 낙농임. 현재 노르웨이의 유제품에 대한 농민이 받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A 보조금 체계가 너무 다양하고 농가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1리터당 5크로네정도 됨. 이는 시장가격의 반보다 약간 낮음. 그러나 유럽 연합의 우유보다 2배 높아 유제품의 수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Q 가격협상후 변동이 생기면 정부에서 어떻게 보조를 해주는지?**  
A 타겟프라이스(최대가격협상)정책이며 최저가격은 협상하지 않으며,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단체와 정부가 시장조정하는 부분이며 지나친 가격하락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음.



Valstad 농장

### 방문개요

- 2015. 04. 07.
- 면 담 자 : 농장 관리자 Anne
- Valstad 농장은 Sandvika와 Drammen에서 약 20분거리에 있는 Sylling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백년이 넘는 과거 형태의 건물과 옛날사람들이 살던 삶의 형태와 도구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고, 장기간 투숙하며 농장체험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음

### 질의응답

- Q 농장을 운영하는 주요방안과 수입은?**  
A 학교나 단체에서 오는 농장체험을 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사회봉사를 통한 농장체험도 병행하며, 정서가 불안정한 아이들을 치유하는 사업과도 연계하여 농장을 활용하고 있음
- Q 농장운영에 대한 정부의 보조는 있는지 ?**  
A 건가축의 수와 토지사용 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받으며, 또한 농장에 있는 오래된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지급되고 있고, 가축들의 방목을 위한 목초지를 매년 할애받아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으로 사육을 위해 이동함



베르겐시 경제부

### 방문개요

- 2015. 04. 09.
- 면 담 자 : 베르겐시 경제부장
- 베르겐은 시의회가 시장부를 선출하며 시장부는 시행정을 이끌어 나가며, 시의회에 안건을 제안하고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시의회는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되고 투표는 4년에 한번 열리고 있음. 베르겐과 같은 지자체가 노르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며 구체적인 업무를 하며, 기초 보건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지역도로, 하수, 구역, 법규, 토지사용, 환경, 비즈니스발전, 향만, 소방 등의 구체적인 일들을 담당하고 있음.

### 질의응답

- Q 베르겐 시의 1년 예산과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A 170억 노르웨이 크로네, 60%가 사회복지예산이다.
- Q 비즈니스 부분에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간섭을 하는 것인지?**  
A 개인이 내는 세금은 도시로 사업은 나라로 그런 점에서는 나라가 관여함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음



# 제28회, 제29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 의 안 : 총12건 조례안8건, 예산안1건, 계획안2건, 결의문1건  
■ 처 리 : 총12건 원안가결9건, 수정가결2건, 계류1건

## 1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계류
- 주요내용 :
  -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건립(안) : 면천두견주 제조환경을 개선하고 중요무형문화재의 격에 맞는 전수교육관을 건립하여 면천두견주의 보존·전승활동을 지속 추진
  - 합덕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안) : 합덕일반산업단지 등 공단개발 및 서해안 복선전철 합덕역 신설로 인한 향후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적극적인 주민복지·편의시설 확충 및 체육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문

- 발 의 자 : 박장화 의원 대표 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 중단과 지방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계	729,638,536	648,344,991	81,293,545
일반회계	603,384,685	558,143,402	45,241,283
특별회계	126,253,851	90,201,589	36,052,262

## 2 당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발 의 자 : 맹봉재 의원 대표 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당진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당진시 국어 사용 촉진 조례안

- 발 의 자 : 안효권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등을 명시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국어 사용 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4 당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중 위원 위촉 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 명시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퇴직자'를 추가 명시

## 5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일몰제 적용(2014.12.31.까지)으로 종료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 및 현행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

## 6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지방세관계법 및 국세징수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내용 및 용어를 바르게 정비

## 7 당진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규정삭제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 추가

## 8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수수료)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맞게 개정

## 9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함

## 10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이전(안) : 시민의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서 주차장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신축·이전을 추진 ▶ 부 결

- 송악읍 주민자치복지시설 건립(안) : 산업단지 조성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행정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복운3리에 노인여가시설,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지원센터 등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을 추진 ▶ 가 결

- 공유주차장 조성을 위한 합덕교회 매입(안) : 화재로 소실되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합덕교회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유주차장 및 공연공간으로 조성 ▶ 부 결

- 순성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안) : 주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활동 공간 확보와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센터 건립을 추진 ▶ 가 결

- 당진3동 청사 신축(안) : 업무공간이 부족하고 활용이 어려운 현 청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사 신축을 추진 ▶ 가 결

### 시민 누구나 이용하세요! 당진시의회 시민쉼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당진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을 위한 회의와 대화의 공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의회를 방문하시는 시민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세요.

- 장 소 : 당진시의회 1층(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의회 의회동)
- 이용자격 : 당진시민 누구나
- 이용시간 : 1회당 최대 2시간/타 이용자가 없을 경우 업무시간내 (평일 09시~18시) 이용가능
- 이용문의 :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전화 350-4815)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전화☎ 350-4815

## 2015년 시의회 하반기 의사 일정 계획

구 분	회의일정	의사일정
제30회 정례회	7.7.~7.8.(2일)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7.9.~7.10.(2일)	• 현장방문
	7.13.~7.16.(4일)	• 2015년 시정에 관한 질문
	7.1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총무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7.20.	• 본 회의(안건의결)
제31회 임시회	9.7.~9.11.(5일)	•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이동의정실	9.14.~9.22.(7일)	• 14개 읍면동 의견청취 및 현장방문
제1회 의정정책포럼	10월초	• 당진시민을 위한 복지정책과 발전방안 토론
제32회 임시회	10.15.~10.19.(5일)	•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 • 현장방문
제33회 임시회	11.4.~11.11.(8일)	•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 •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 의정연수(충남도 시·군의회)
제34회 정례회	11.23.~12.21.(29일)	•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 •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2016년도 예산안 심의

※ 상기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

**정의**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염**

2~14일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파**

2m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됩니다.

**예방**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여야 합니다.

**진료**

14일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였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

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생검액의 유전자를 검사(RT-PCR)하여 진단합니다.

**치료**

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장비**

의료진은 손씻기, 일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예방 수칙

- 평상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비누와 물 또는 손 세정제로 손 자주 씻기
- 중동지역 여행(체류) 중 낙타, 염소 등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시기 바랍니다.
  - 화장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대신 옷 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일반 마스크 착용하기
-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동지역 여행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질병정보 : 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http://www.cdc.go.kr))  
②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

